

2014. 웨신동문들, 모교 사랑에 뜨겁게 뭉쳤다

이홍규 목사(웨신), 이주형 목사(합신)
“자랑스런 총동문상 수상”

웨스트민스터(이하-웨신)총동문회(회장 모상련목사)는 11월 6일~7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인 웨신대의 발전과 4500명이 넘는 동문들의 단합을 위하여 안전토의와 기도회를 갖고 기수별로 인사를 나누이며 덕담을 나누었다. 첫날 순덕식 목사는 “목회자와 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둘째 날은 총장 박형용 박사는 “망원경으로 본 신앙성경”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첫날 동문들은 유람선에 올라 단양의 명승지인 석문과 도담삼봉을 관광하고 동문들 간의 우의를 다져갔다. 아울러 웨신 동문들은 온 산천을 붉게 물들인 단풍에 환호성을 지르며 각자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남달리 모교인 웨신대를 사랑하는 열정은 뜨거웠다. 예수님의 제자는 ‘포기, 추종, 고난, 섬김, 선편’ 하는 사람이다.

이날 오후 7시 정기총회에 앞서 1부 예배에 동문 이용근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는 성경 막8:34-38절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모 회장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어떤 것인가란 서두에서 제자의 도가 중요한 것은 “포기”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즉 모든 것을 포기 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가 “포기”라고 했다.

두 번째 “추종”이다. 추종은 따른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추종이라고 했다.

세 번째 “고난”이다. 제자는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주의 종들 가운데는 자신의 영



△웨신대 총장 박형용 박사(좌)

△웨신대 총동문회장 모상련 목사

광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은 고난인데, 박해와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이었다. 네 번째 “섬김”이다. 제자는 섬겨야 한다고 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주의 종들은 마땅히 낮아진 가운데서 섬겨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 “선편”인데 주의 제자는 선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예수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제자의 도는 포기, 추종, 고난, 섬김, 선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축복을 기원한 후 동문 정정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 회장 모상련 목사는 이주형 목사(합신,직전총회장), 이홍규 목사(웨신,직전총회장)에게 “자랑스런 총동문상”을 전달하고, 모상련 회장의 사

회로 회무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차후 보고 할 것을 결의하고 회장 모상련 목사의 기도로 폐회되었다.

이어 순덕식 목사는 “목회자와 건강”에 대해 특강을 가졌으며, 이기학목사의 진행으로 동문음악회가 시작되어, 특별출연한 김의환집사의 찬양이 있었다. 또한 총무 정석중 목사의 진행으로 “동문이라 감사해요”은사, 동문소개, 새얼굴, 선교사 등을 소개했다.

또한 7일 오전 9시 30분 김명선 목사 사회, 박우재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총장 박형용 박사(웨신대총장)는 “망원경으로 본 신앙성경”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으며 합신총회 직전 총회장 이주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2014년 웨신 총동문회 정기총회와 모든 일정을 화기애애한 가운데 아쉽게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귀가 길에 올랐다.

사설

위헌 위법 일삼는 국회라면 해산해야

국회는 “입법권(立法權)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근거한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정한바 ‘헌법준수’를 선서한 연후에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게 돼 있다.

정원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는 입법권을 비롯하여 국가예산안심의확정, 조약제결비준동의, 국군과병동의, 국정감사 및 조사,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해임건의, 선출직 대통령과 행정사법임명직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가진 초(超)권력집단이다.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 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케 규정했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위헌이나 위법을 자행 했을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장치도 없이 국회의원 개인의 범법에 대해서까지 ‘불체포특권’ 등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나 징계를 받도록 규정된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비단 19대 국회 뿐만 아니라 역대국회가 위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최후단 테러와 공중무양난동이 벌어지고 국회의원이 특정이 해집단과 결탁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심야에 집단폭행을 가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가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대표적인 위헌 및 위법사례를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헌법 제49조,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 수 찬성 의결이라는 다수결원칙을 무시 60%찬성 40% 소수결정권을 부여 한 국회법 85조-2(신속처리안건) 신설로 국회마비를 초래했다. 2. 헌법 제54조에 정한 바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전년도 12월 2일) 국가예산안 심의의결 시한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3.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 5조의 ③ 국회 임기개시 7일에 소집토록 규정한 총선 후 최초 임시회의 기일을 무시, 19대 국회의원 경우 법정시한이 2012년 6월 5일을 1개월여 지연 7월 2일에서야 첫 소집, 원 구성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4. 선거법상 허점으로 국가반역전력자 및 파렴치 전과 무자적 무능력 불량 불순세력 다수가 원내에 침투 국회를 이념 및 폭력 정치투쟁거점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과 위법 탈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 소환제신설, 국회선진화법 폐지, 윤리특위강화

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국회의 일탈과 횡포를 더 이상 방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국회탄핵소추권에 필적할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소환제도 신설, 2. 국회선진화법으로 포장된 국회법 85-2조 폐기,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 부활, 3. 새해예산안 법제시한 내 심의의결이 불가 시 정부원안대로 시행 강제규정 제정, 4. 여야 정당의 합의와 상관없이 총선 후 임시국회 법정기일 내에 자동소집제도로, 5. 선거법상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외환, 간첩관련 등 국가반역전력이나 파렴치 전과자 입후보제한 및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 6. 국회 불체포특권 엄격적용, 대통령 특사대상 엄격심사, 반역전과자 복권제한, 7.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사소한 의원 위법 불법 탈법 일탈도 엄격하게 규율, 8. 정당실립 및 등록요건 강화, 위헌정당 해산 신속결정 제도 마련, 9. 여론조사기본법(가칭)을 제정 부실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를 빗자한 불법여론조작결과로 불량부정 공직후보자 선출(경선)차단 봉쇄

성경이 2,551개 언어로 번역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551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성서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7개의 언어로 더 번역되어 491개, 신약은 지난해에서 그대로 유지한 1,257개, 그리고 단편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803개에 이른다. 단편만 번역된 언어의 수가 2012년에 비하여 줄어든 것은 그 해당 언어 단편이 신약으

로 번역되어 단편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성경의 번역된 언어의 수가 늘어난 것도 신약이 성경으로 번역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전세계의 7,105개의 언어 중, 실제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가 511개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대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1,067개의 언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 748개 언어, 아메리카 지역에 519개 언어, 유럽 지역에 214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혹은 몇 세기 전에 번역된 오래된 번역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15년 말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전체 성경 번역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43개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15개의 성경이 출



판되었고, 43개의 성경이 출판 진행 중에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JTNTV방송 언론부흥사협회 부총재)...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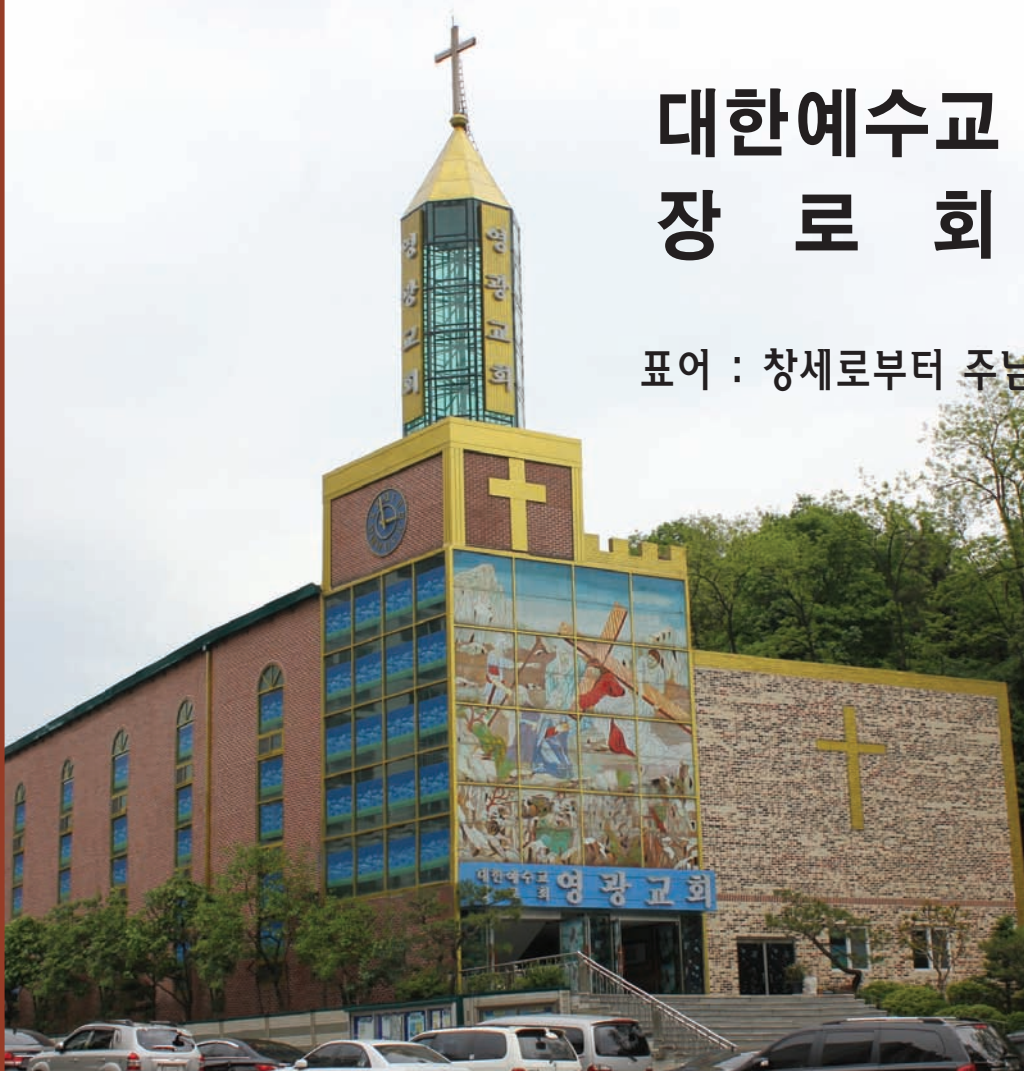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채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秋收感謝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이다”(시 105:1-2)아멘.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김종록, 이원익,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원명숙
-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윤경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심재현 · 지 휘 : 조은총, 왕소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아 예배 오후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3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7: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第1會 中國 基督教指導者 邀請 靈性治癒 세미나 開講

靈性治癒 研修會



제1회 중국 기독교지도자 초청 영성치유 세미나가 경남 진주시 진주사랑교회, 경남치유신학연구원(학장 정호석 목사)에서 지난 11월 3일(월)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첫날 오전 11시 개강예배를 드렸다.

학장 정호석 목사의 예배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서재식 목사(합동보수총회 회의록서기)가 기도를, 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요 21:15~18절을 중심해서 중국선교사의 통역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영성치유신학연구원 사역자 김상배 목사가 환영사에 이어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총회신학대학원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경남신학원 학장이며 진주사랑교회 담임목사 정호석 목사는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을 개설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영성치의

연수회를 갖고 세미나를 개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성전에 들어서면 게시판에 靈性이란? 성경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십자가를 진, 內容과 痕跡을 가지고 聖靈의 引導와 指導와 役事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말한다. 는 말씀의 문구가 이곳을 찾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는데 충분하다.

또한 교육관 게시판에도 “옛 사람과 自我를 죽이지 아니하면 얻지는 그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통곡하게 되며 자기 십자가를 진 痕跡만이 화려한 부활과 삶의 回復을 얻게 된다.(성경:갈2:20, 6:17, 딤후2:20, 고전15:31, 골1:24, 마16:24)”는 말씀으로 거듭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감을 주고 있다.



후쿠시마 재난지역에서 동북 한일우호집회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인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이종진 목사 이장: 정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제3회 동북 한일 기독교우호집회가 지난 11월 3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의 재난피난소인 빅과 탱크에서 개최됐다.

일본인 100여명, 한인선교사 10여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는 한교연과 선교협약을 맺은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한선협)가 공동 주최한 집회로 쓰나미와 원전 사고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고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후쿠시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오후 1~3시까지 집회를 인도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후쿠시마현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루속히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인도한 집회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현기독교연맹 주관으로 기도회가 열렸으며, 오후 7시에는 후쿠시마 북음교회로 자리를 옮겨 한일 기독교인간 담화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 기독교인들은 재해민들과 재해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각 기독교인 단체를 지원하고 후쿠시마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를 비롯한 한교연 방문단은 지난 4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후쿠시마 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본사 창간 9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회 열어



JTNTV. 지저스타임즈는 창간 9주년을 맞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75번길 전원중앙교회(정기환 목사 시무)에서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감사예배를 드리고 축하연을 가졌다. 송년회 및 이사회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부여극제금식기도원(문영이사 곽에스터 목사)에서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 갖는다고 했다.

전국 25개 지사 및 해외 지사 장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부여극제금식기도원 원장 곽에스터 목사(문영이사)가 기도하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성경 요한계시록 7:1~7절을 봉독하고, 전원중앙교회 성도들의 몸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허식 목사(한경총증경총회장)는 “일곱벌과 일곱

총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박사라 목사의 특별찬양과 본사 회계 유순옥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이준철 목사, 장한국 목사(본사 부이사장)의 권면이 있은 후 광동훈 목사(강원지사장, 연부협 부총재), 고성규 목사(삼일이사, 다니엘교회)의 축사와 꾸미우리 기독교무용단의 축하 찬양과 연예부기자 정종환 목사의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다.

아울러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연부협총회 대표회장)가 내빈들과 전국 25개 지사와 해외 30여 지사를 소개하고, 필리핀 지사장 이경철 목사를 특별히 소개하고 LA미주 타임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새롭게 탄생하는 수원지사와 지사장 차준환 목사를 사령했

다. 이 외 충남 부여 곽에스터 목사, 강원지사 최낙현 목사, 김성립 목사, 박용숙 목사, 임혜숙 목사, 박종만 목사, 김창숙 전도사, 합영근 집사, 임인숙 집사, 등을 새롭게 본사와 지사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사령했다.

이어 본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인천지사장)의 광고가 있은 후 본사와 국내지사, 해외지사, LA미주타임즈 등을 위하여, 문서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가의 안녕과 민족복을 위하여, 이사장 정기환 목사와 전원중앙교회를 위하여, 광영민 목사, 김창기 목사, 주은총 목사가 기도를 드렸으며 이사장 정기환 목사의 축도로 본사 및 jntv방송 창간 9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한편 박준민 장로(전원중앙교회)가 중직을 대접하고, 이사회를 가진 후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개혁신교회 부총회장 주사랑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화회장 모상원 목사(목포주안당로교회), 개봉동 남원교회 당회장 이춘복 목사(본사 자문), 이 외 많은 축전과 화환과 화분을 보내주셨기에 본사 모든 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렸다.



“2014년 용어”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축 2014년 秋收感謝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시 95:2-3).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이달의 기도제목

1. 확신제자학교 37기 (23일 개강)
2. 사역팀 총회
3. 임직자 훈련
4. 특별새벽기도회(22일까지)
5. 잃은양 찾기 운동(11월23일~12월25일)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100교회보조(단독선교사)2정파송
지교회10교회설립
교회설립 1981년 11월 29일

부교역자

부 목 사 : 김성집, 최성일, 이정훈, 최영만,
고두빈, 서경훈, 윤영배
찬양 목 사 : 이인성
강 도 사 : 정희환, 김평화, 임상규
전 도 사 : 손원철, 강요한
교육전도사 : 서은영
파송선교사 : 김상식 - 이성진(필리핀),
김진우 - 박은원(인도네시아)
방송 간사 : 유호준

시무장로 및 협동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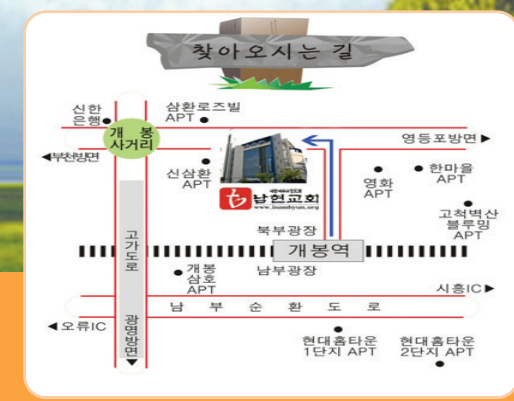
■ 시무장로
강성재, 이선훈, 임승수, 장현용, 김대용, 강권화,
전영수, 이광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화, 김성근,
김문하 나현영, 지윤섭
■ 은퇴장로
배재호, 정현철, 황이만, 정현규
■ 협동장로
김태일, 윤반식, 엄익범, 심상길, 김홍기,
정강희, 김효규, 조성덕

찬양지휘자 및 반주자

찬 양 지 휘 : 김성강, 윤석민, 류현주, 배영배
오케스트라단장 : 차주남
피 아 노 : 서혜원, 김찬미, 김서진, 정유나
오 르 간 : 이지영
신 디 : 정은영, 김소희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1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주일 영상설교 www.inamhyun.org
JTNTV방송 www.jtntv.kr(지저스타임즈)



CTS권사찬양단 美 카네기 홀 공연

오는 11월 2일 카네기홀 공연 시작으로 미주 순회공연



교단과 나이를 초월해 복음의 멜로디로 하모니를 만드는 CTS권사찬양단이 오는 2014년 11월 2일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4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하모니 권사찬양단'을 통해 창단된 CTS권사찬양단은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고 단원들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등 저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국 곳곳의 소외된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찾

아가 나눔 콘서트를 열고 찬양 사역을 감당해왔다.

이번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CTS권사찬양단의 무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세' 등의 찬양곡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며,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CTS권사찬양단 박성덕 지휘자는 "권사님들께서 젊은이를 못지않은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다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 열광 땅 끝까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인 이경자 권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 현자인 및 한인교회 성도들과 찬양으로 하나가 될 귀한 사역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CTS권사찬양단은 오는 10월 31일 출국하여 11월 2일 카네기홀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의 양로원과 프라미스교회, 새들백교회 등을 순회하며 찬양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CTS예술단(단장 윤학원 감독)은 지난해 10월 CTS장로찬양단의 카네기홀 연주를 시작으로 올해 CTS권사찬양단, 내년 10월에는 CTS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CTS예술단의 힘찬 행보에 기대가 모아진다.

대한노회 제13회 정기노회 장한국 목사 노회장 연임

마지막 때 깨어 있어 사명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자



나타나고, 그 후 그리스도가 재림 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도하는 일들이 미국을 비롯 일부 국가들과 나이지리아의 수니파 무슬림들은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참혹한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며 전도만 해도 즉각 체포되어 감옥에 처넣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명한 목회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배도하는 일들이 꿈틀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대한노회와 동역자 여러분은 마지막 때 깨어 있어 신부단장을 위하여 사명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자며 직시했다.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대한노회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인허증을 정상열 전도사에게 수여하고, 노회장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는 회록서기 박명자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시작되고 박종연 목사, 김은임 목사가 분별, 분간위원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어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모든 보고와 안건을 다룬 후 임원선거에서 총대원 전원의 박수를 받는 가운데 노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유임되었다. 단 부노회장은 공적으로 두기로 했다.

한편 대한노회는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운영을 위하여 문서선교 후원금을 년 간 100만원을 책정,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폐회예배에서 이창우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로 10월 정기노회를 마쳤다.

신임 대표에는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추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24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제13회 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을 가졌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서 제1부는 예배로, 제2부는 총회로, 제3부는 대표 이·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에 실행위원장 황규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장 최성해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최 이사장은 '우리는 세상의 언론과 정치의 막강한 세력들과 싸우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 되고 단합하여 성도의 긍지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김용관 목사의 기도, 남서호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대표 김승동 목사는 "인생은 한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씨앗을 똑같이 땅에 뿌려도 어떤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언론회가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존립해 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달려왔고, 주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면서 평가했다. 연이어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의 광고 후, 최성해 이사장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제2부는 대표 김승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종승 목사의 기도, 서기 김용관 목사가 회원 88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하여, 정관에 따라 총회가 성립됨을 확인하니, 이에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임원 개선에는, 법인 신임 이사에 유만석 목사를, 대표에 유만석 목사, 신임 공동대표에 황규식, 이억주, 허남길 목사를, 게다가 회계에 권영석 목사를 확정지었다. 그 외에는 유임시켰으며, 안건토의에 들어가 '정관 개정'에서

는 제21조의 2(총회의 의사)를 신설하고, '의결정족수'에서 제21조와 제40조(정관변경)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과반수'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이어 원효식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제3부 대표 이·취임식에서는 공동대표 이억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한국교회언론회의 활동영상을 시청하고, 찬송 94장을 부른 후, 예정 합선 우종휴 총회장의 기도, 예정 개척 안성삼 총회장의 성경봉독, 예정 통합 정영택 총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아울러 김승동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한 것과,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물려받아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언론회 제9대 대표 유만석 목사님이 더 잘 하시도록 밀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만석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지키는 직임을 맡으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제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무너트리려는 세력이

있어 왔는데,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에 비록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하여도 한국교회언론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자가 다져놓은 자리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공교단의 인정받는 기관, 공교단을 통해 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따라서 전용재 감리교 감독회장과 예정 합동 백남선 총회장의 영상 축사와 수원기독교총연합회 반종원 목사, 정미경 국회의원의 축사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예정 백석 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해 보도자료 16회, 논평 54회, 성명서 1회, 방송출연 45회, 공문발송 82회, 공문수신 31회, 실행위원회 10회, 소위원회 2회, 기타 교회와 사회에 관계된 이슈에 대한 수십 번의 인터뷰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언론, 대사회, 대정부에 대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교회와 1:1 결연에 동참해 달라

21일 대대급 부흥 컨퍼런스… 지역교회 등록 시작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 목사) 부설 군선교연구소(소장·소강석 목사)는 오는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오후 5시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군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지역교회의 군선교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집중수세 신자의 자대군인교회 정착을 돕고 대대급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대대급교회의 상황을 직 접 듣고 후원이 필요한 집중교회 알리는 한편 집중사역 모델사역과 지역교회 연결 성공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교역자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의 회만이 양육을 하고 있었으며 31% 교회의 선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설문에 응답한 군선교교역자의 81%가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일반교회와의 결연을 희망해 1:1결연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대대급교회와 지역교회의 1:1 자매결연을 추진, 군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대대급교회의 상황을 직접 듣고 후원이 필요한 집중교회를 후원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대대대급교회는 5개 유형(A형 전담사역 / B형 주기적사

역 / C형 연중사역 / D형 건축, 비품 지원사역 / E형 후원 및 지원사역)으로 구분하고 일반후원 대상교회를 군선교에 대한 교회관심, 재정능력, 인적구성 가능성에 주안을 두고 분류해 효율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했다.(첨부자료 참고)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유형별로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현역사단 군종목사, 대대급 군선교교역자, 지회, 후원교회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한다. 상담 후에는 지역교회와 대대급교회의 결연을 진행한다. 군선교연합회는 많은 지역교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16개 국내 지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군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 는 군선교연합회 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박종민 간사 / 02)744-2661~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아멘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시향의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목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



서재석 목사
동성교회



박영석 목사
예복교회



송인석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경 남 신 학 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남가주교협, 정기총회 및 새 회장에 최혁 목사 선출

남가주교협회의회는 11월 3일 10시30분 노스리지에 위치한 주인에 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최혁 목사를 선출했다.

박효우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이훈준 목사의 기도, 김사무엘 목사의 설교, 최화량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회 임원 선출과정에서는 정관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회장 선출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2014년 총회를 한 달 앞두고 수석부회장에 선임된 최혁 목사가 수석부회장이 된지 불과 1달 만에 회장에 선출되는 것은 정관을 떠나서 교계 선거 과정에



▲남가주교협회장 최혁 목사

대한 많은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도 다음 회장이 될 수석부회장 자리는 공식으로 남겨 뒀으므로 선거 문화에 대

한 한인교계의 모습은 계속 뒷거를 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최혁 신임회장은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M.Div를 수료했으며, 남가주사랑의 빛신교교회 담임을 거쳐 현재 주인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LA 다니엘 방 기자

2014년 교회재정 세미나“공개해도 괜찮아”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교회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명함을 깨끗함으로, 깨끗함을 바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음으로 판단하게 되고 관련 된 정보를 불신하게 된다. 투명함이 바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그 만큼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치는 말들에 신뢰감을 부여할 때 교회가 전하는 복음 또한 의미를 갖

는다. 성경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마 5:16). 교회의 결산서는 교회의 행실을 숫자라는 형식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에 교회 결산서를 공개하는 것은 교회의 행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이 교회의 행실을 알아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 재정 공개가 나타내는 의미들을 고민하고, 공개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오에홀에서 갖게 되며, 오는 11월 14일(금) 오후 2시~4시까지 진행 된다.

이날 사회는 황병구 목사(재단법인 한빛누리), 최호은 회계사(삼회 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인사말과, 주제 강연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교회 재정 투명성의 신학적 전제, 이형기 교수(공직신학과 교회연구소 소장, 장신대 명예교수), 패널리토로는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한 좌담에 김재수 장로(분당샘물교회 사목처장), 정성규 목사(부천연인교회)와 그 외 1인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 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아울러 재정공개는 건강한 재정운동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했을 때야 비로소, 보다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지며, 또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의 쓰임에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 재정공개가 아닌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해 조망하여 논의를 확장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 했다.

인권교육할 자격자도 준비도 안 돼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대표 발의(공동발의 44명)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큰 문

한국교회언론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해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국가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은 교육기관과 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인권 의식을 높이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야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권 교육의 최종·최고의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과연 교육 주체로써 타당한 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

반대 의견,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에는 소위 '야심작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 권고,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징계 조치 권고를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한 의견 제출건이 있었고, 2010년에는 야간시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제출건도 있었고, 또 2010년에는 박원순 변호사 명예 훼손 사건 의견 제출건이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지만, 이는 국가인권위 내부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종략...www.jtntv.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음)

그런가 하면, 2008년에는 동성

애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별빛이 야기2"를 제작·개봉하였고,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 6폐지 의견 전달,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동성에 관련 보도를 가로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에는 동성애자가 동성에 광고를 하려는 것을 불허한 지자체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동성애 선전 현수막 불허에 대하여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전국의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옹호 위원회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동성애의 후유증과 사회적인 파장, 동성애로 인한 질병과 그에 대한

전문학적인 국민현세 부담을 국가인권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인권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예정되는 인권 시민 단체의 상당수는 지난 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밝혀졌을 때, 오히려 국정에 대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확대하라고 압박하였다. 이런 편향적인 단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하게 될 것인가는 짐작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이 같은 일들을 감당해 온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그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게 인권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와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과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이런 교육을 담당할 공정한 객관적인 국가기관이나 인권 단체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을 강조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심 내용인 '동성애'에 입각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동성애 옹호법안이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무려 14,500건이나 올라와 있다.

이제라도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잘못된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며, 목적하는 바 인권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성애 옹호 및 확산법안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으로 크게 염려된다.

경인백석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
(D.Ed., Th. D.)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헐없이 무너져 내려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백석총회 인준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잡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를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설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정력

• (사)기독학술원 이사장
•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 (저서)조직신학개론 외 25권

• 세계원주전교회 회장
• 캐나다크리스천대학교교수
• 전원종교회 담임목사

●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성에 입각한 총회인준 신학교로서, 전통적으로 대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재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여권사진 3매 ⑤ 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 전형안내

· 전형기간: 12월~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 특전

· 본 교단은 여목사 안수제도가 있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세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8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스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원격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 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 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 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 이번 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역사신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瀋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김남수교수(교회성장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소정교수(음악사) : (D.S.M)(獨)Goettingen National University

박성국교수(교회음악학)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강석현교수(신학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살신신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마호인교수(성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역사신학)(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GP)(加)Canada Christian College

무용학과 : 김희선, 조은희, 최재옥, 전병희교수외

2014 美 중간선거 OC 한인 후보 5명 동반 당선

자랑스런 한국인 공화당 8년 만에 양원 장악



▲ 영 김 후보가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환호하는 모습.

인 정치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5명으로 구성된 카운티 수퍼마이어는 카운티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성장에

공화당 8년 만에 양원 장악 -

오바마 대통령의 네임덕이 빨라질 듯

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거기간중 제안한 "투명성 및 정부 내의 낭비와 비효율성인 정책의 변화, 그리고 누구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의 실현"을 통해 한인커뮤니티의 정치력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최석호 어바인 시장은 재선에 성공 함으로서 늦각기 정치인생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USC와 UC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한 최 시장은 어바인시의 공공안전과 교육 등을 더욱 끈고히 하면서 크레이트 파크 내 메트로폴리탄

도시권 건축을 위해 기금확보 및 프로젝트 추진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팔마 시의원의 재선에 성공한 스티브 황보 시의원은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지역에서 재선에 당선되는 패거리를 올려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높였다. 그의 재선 공약인 "장기적으로 시의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사이프레스에서는 현재 메그놀리아 교육구에서 교사 교육 및 지원을 담당하는 새내기 한인 정치인 샌드라 이 후보가 교육위원회에 당선돼 기쁨을 더했다. 이 당선자는 앞으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느낀 교육 개선 방침을 정치를 통해 실현해 보고픈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열에 비해 의사 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한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 전역에서 한인 출마자 25명 가운데 17명이 당선 또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내 한인 정치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유권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초접전으로 예상한 일본계 마이크 혼다 미 연방하원이 한인들의 도움으로 8선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위안부 역사 알리기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8년 만에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하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네임덕 현상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은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대선에서 대권을 되찾아 올 초석을 다지게 됐다.

LA다니엘 방 기자

- ※ 소명의식이 확실합니까? 속히 오십시오
- ※ 학문의 시간을 놓쳤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 ※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 ※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학생모집 범위는 이단을 제외한 초교파입니다.



경인백석신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7(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교차로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 : 010-2956-9191, 050-5555-9191
E-mail : Keyone209@hanmail.net

· 교학처장 : 김남수 목사 · 학생처장 : 박준민 장로
· 사무담당 : 이인애 · 교무담당 : 전병희



2014 풍성한 추수감사로...

지저스타임즈를 애독해주시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박해를 피하여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유래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맥추절이나 수장절도 모두 추수감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사실 추수감사의 정신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 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127:1)



사람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 짐승이나 곤충들도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본능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라는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왔고 학문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은 언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수 많은 언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만큼 영향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의미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인

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불평하면 불평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더 많은 감사할 내용들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

하나님의 영광 (고전10:31-33)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한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과연 몇 %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축제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목적”이며, 인생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1. 예배를 통해 영광돌립니다. 예배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실까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아무리 순서를 잘 진행해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축제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감



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 재능을 통해 영광돌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다면, 주신 재능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축제 순서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오후 순서를 통해 재능을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

복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삶을 통해 영광돌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규정은 간단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물된 교회에 덕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엔 주일날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축제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축제 순서를 진행할 때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재능 자랑하고 내 기분 좋기 위해 공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고 여기에 맞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준복 목사(남현교회 담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3:15-17)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한 해의 여러 절기 중에 감사에 대하여 더욱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사전 감사와 사후 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 좋은 일이 생긴 후 감사하는 사후 감사도 좋지만, 미리 선불하듯이 사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후에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즉시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감사가 되지 않고 억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알고 있다”는 책을 내었습니다. 물에도 눈처럼 결정체



있다고 하면서, 물에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틀어주고 사진을 찍었더니 물의 결정이 맑고 아름답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 찬 음악의 한 장르 곡을 틀어주니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감사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을 함께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말이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민14:27)고 하셨습니다. 쇠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4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역사’ ‘죽음에 이르는 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들은 정말 유명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마6:24-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침묵과 순종과 기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본문을 통하여 사람이라는 것에 만족하였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배웠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합화를 내려다보면서 배우고, 공중의 새를 우러러보면서 또 배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저스타임즈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시면 마치 매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그 감사 매일리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할 제일의 덕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무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장 정기남 목사(전원중앙교회 담임)

나오미의 회복된 추수감사 (룻기서 1:15~18)

결실의 계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슬픔과 한숨으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 울며 씨를 뿌린 결과 뜻밖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나오미처럼 가장 많은 것을 잃고서도 가장 좋고도 알찬 결실을 얻어야 한다.

1.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헬에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났지만 얻는 것 대신 잃는 것이 더 많았다. 그들이 간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며,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물론 당장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아 그들은 그곳이야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 두 자부를 얻게 되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도 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압에 들어와 살기를 잘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뒤 이어 약속이라도 하듯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말았다. 한숨을 쉴 곳조차 없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토록 감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조롱과 손가락질뿐이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베들레헬을 떠난 것이 무서운 저주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오미는 다시 큰 결단과 용기를 내었다. ‘잃은 것은 잃은 것으로 끝나되 더 이상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 살리라, 지금까지는 세상 정욕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만 위해 살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미련한 사람은 지난날에 집착하여 오는 밝은 세상을 놓친다. 과거에

얽매어 오늘을 슬픔과 탄식과 어두움 속에서 보낸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리라.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것을 얻었는데 바로 룻이라는 자부이다. 룻이야말로 전형적인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다.

오르바와 같은 신앙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룻과 같은 신앙이 되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룻과 같은 귀한 신앙을 가져 교회에서도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 지며 빛나는 축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집인 정기남 목사

축 2014 추수감사절

세계주영광부흥사협회(제10차)대표회장 주은총 목사 취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아멘



대표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교회원)



총재 이재갑 목사



부총재 이재원 목사



부총재 정기남 목사



부총재 하종우 목사



부총재 여바울 목사



부총재 광영민 목사



자문 이춘우 목사



연수위원장 정기환 목사



사무총장 오세송 목사



사무처장(회계) 박종만 목사



사무처장(회의록서기) 김혜영 목사



강사단장(상임회장) 전진성 목사

• 상임회장 : 박연자 목사,
• 실무회장 : 윤광석 목사, 선명숙 목사, 주찬양 목사, 배정희 목사, 최건숙 목사, 한사라 목사, 김부경 목사, 조정숙 목사, 임요한 목사, 주은혜 목사, 김기성 목사, 유한나 목사,

• 공동회장 : 오선연 목사, 이운선 목사, 조형자 목사, 김명옥 목사, 임봉남 목사, 김순애 목사,
• 총 무 : 천이순 사모, 부요한 전도사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회장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성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 요한계시록 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3)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다

(지난호에 이어)

단수 한 사람인 읽는 자를 통해 계속 들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일곱 번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아 첫째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계 20:6). 이 복은 첫째부활한 자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복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계 19:9).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나 그들이 복이 있다(계 22:14).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 14: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 1:3)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복들의 내용은 같은 복을 말합니다. 첫째부활의 영광을 받아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의 복을 말합니다.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의 “그 때”는 년·월·일시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이어(카이로스)는 season과 같은 의미로서 7년의 환란기간이 가까워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 24:45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때는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환란기간 중에, 또는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의 기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으며 그들이 먹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흥협 부총재



고 살아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7년의 환란기간, 전 3년 반 기간, 후 3년 반 기간과 같은 기간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증거로써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환란 날에 순교할 자의 수와 그 때에 사역할 종의 수를 뽑으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환란은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란이 시작해서 전 3년 반의 기간과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일어날 일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후 3년 반이 끝난 후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기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인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계 13:1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이후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할 일의 “그 때가 가까움이라.”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일곱 머리는 성경 안에서 일곱 번째로 나타나는 대적자를 가리키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또 열 뿔은 열나라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 뿔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 열 뿔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WEU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머리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도 다니엘 7장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출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WEU는 EU와 별도로 더 심화된 안보협력기구입니다. WEU에 가입된 10나라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1992년 제1 마지막으로 가입한 그리스입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에 의하면 작은 뿔이 먼저 세 나라를 뿌리째 뽑고, 권세를 받아서 세 나라의 왕이 되면, 나머지 일곱 나라도 자동적으로 종속되어 통합된 열 나라의 왕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되면서 결국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까? 계 13:16-18 말씀이 전개됩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

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입니다. 이 때 경배한 자에게 주는 짐승표가 있으니 예컨대 베리칩(VeriChip)과 같은 것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 칩은 생체칩으로서 이미 2002년에 만들어졌고, 미국 시애틀에서 허가 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의 길이는 12mm, 두께 2.2mm의 쌀알 크기만 하여 사람의 피부 속에 삽입합니다. 사람의 모든 신상정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인공위성으로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과 경제활동이 통제받게 됩니다. 이때는 은행의 ID카드나 패스워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로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기계의 부속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해서 되어 질 일들이 전부 준비완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핵문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현재 다 준비되어 카운트다운을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수이트 소속입니다. 역대 교황 중에 제수이트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33명으로 구성된 제수이트는 전면에 교황을 세워서 그를 조종하는 실제 실권 조종이며, 제수이트의 수장을 겸은 교황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수이트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전심전력 몰입작업을 하고 있는 단

체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때를 맞춰서 제수이트 출신의 교황이 등장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공식적 등장이 임박해 왔음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이 계시록 2·3장에 나옵니다. 이것으로써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는 요한 당시의 일곱 교회라고 정의하고, 또 AD70년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계시록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또는 일곱 교회가 2천년 당시 있었는데 일곱 교회 중 최초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로 보고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는 재림 때로서 역사적으로 2천년간 단계별로 교회를 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주장들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동되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11절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스며나와 페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하시고 12절의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는데 “일곱 금촛대”가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1절의 일곱 교회와 12절의 일곱 금촛대가 연관이 되는지, 혹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으로 가야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일곱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일곱 등불



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것의 왼쪽에 있다.” 하고, (스 4:2-3)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임이니라.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스 4:10). 스 4:10의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 무엇입니까? 이는 스 4:6의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하신 성령을 말씀하는데, 계 5:6의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 4:10의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일곱 눈들이 일곱 영임을 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이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 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니(스 4:11-12)

스 4:11-12의 답변으로 14절에 “이들은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 촛대의 오른쪽과 왼쪽의 두 금관에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 내는 금 기름에 발리운 자들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이며, 이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계 11:4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건강칼럼 “욕구불만의 폐해!”(51)

피해망상 억제하고 꿈과 소망 키워야 건강한 잠재력 생겨

황성주 박사



현재 사람의 역량이나 지나온 노력의 발자취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의식구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자기같이 선량한 사람은 이 왜곡된 구조에 철저히 희생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을 자신에 불리한 쪽으

로만 해석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욕구불만이다.

그런데 이 욕구불만이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욕구불만은 우울증이나 깊은 열등감으로의 지름길이다. 물론 서구의 철저한 능력주의의 인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벌, 혈연, 지연 등 외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피해망상에서 나온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명예나 부는 행복의 보완수단이지 행복 자체는 아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과 행복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천부의 재능과 인격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인간존재의 독특성과 다양성의 원리를 굳게 믿는다.

평범함을 감사하라. 주어진 상황을 일단 받아들여라. 이 경쟁심리와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만이 그동안 얻어보지 못한 무한한 잠재능력을 샘솟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의 새로운 능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새로운 꿈이 솟아날 수도 있다. 대기만성형의 대담적인 삼국지의 유비는 한 마디로 아도했다. 전략이나 전술에 어둡고 동작에 민첩성이 부족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잡는가 하면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찬스 때마다 의리를 내세워 양보하곤 했다.

그는 항상 빈털털이였고 사실상 실업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태연자약했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웅대한 꿈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유비의 이런 점 때문에 적들은 유비에 대해 경계심을 품지 않았고, 그

는 자신의 뜻과 포부를 비밀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그는 군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과감히 맡기고 잔소리가 없다. 그래서 부하들은 소신껏 말할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다. 이른바 거대한 조직이 물 흐르듯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평범함을 감사하라. 그리고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성실하게 키워 나가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의 폭발적인 잠재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강의 중에서

축 2014 추수감사절

에녹 부흥 신학원

박명민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일 목사

김명세 사모

교 수 진

김선우 교수

박명세 교수

박명세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김선우 교수

■ 광역인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에누능역지유센터 운영
- 에진(에누능)의 설립자(초대 총회장)
- 세·주·부·합 부총재
- 에누 부흥 신학원·부흥(회) 대표/전수원장
- 세계주변정부총서협의회 8세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턴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전사 사무국장
- 에·경·예·총·회 연합회 총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 에·경·예·총·회 연합회 총회장

http://kiea.onmam.com

중산 및 교재 무료 제공

☞ 시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학술원)

☞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에누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매주 금. 토 오전 10:00부터~

“ 몸찬양(무용,국악,현악)매주(목)오전1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총회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회의 총재)
사무장로: 신오석, 정종국, 김홍영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들어

“말씀에 이반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할 축복하소서” (고후 1:18-20)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성에서 믿음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신실도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기라.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 길

(도시행복버스) 1 종선 ~ 화정 85-1 교앞동 ~ 송정전차역 850 교앞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가량)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예 배 만 내	요 일	시 간	찬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헌신학교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왕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 우성A상가 202호

이사장 H.P 011-287-0317

제2회 빛의숲 페스티벌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되다



11월 1일(토)에 광림사회복합문화센터 앞 '빛의숲길'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캔들 상점들이 늘어선 좁은길을 위한 이국적인 문화의 거리로 변신했다. (11월의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주제로 11월 1일~2일 이틀간 이곳에서는 뮤직페스타, 스윗캔들마켓, 스타트랙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빛의숲 페스티벌〉은 빛의 숲길과 강남 가로수길 일대에 건전하고 밝은 문화를 만들자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스트릿 페스티벌'이다.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밤에는 〈빛의 숲 루미나

레 축제〉가 이어진다. 광림 청년 선교국과 신사동사무소가 함께 기획, 협력하여 루미나레를 빛의 숲길로부터 가로수길에 설치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눈꽃 모양의 LED 조명의 루미나레는 포스코가 신사동사무소에 전달한 것을 광림교회 청년들이 무료로 얻어와 설치한 것이다. 루미나레와 교회 담벽에 설치한 레고블럭을 통해 젊은이들은 11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광림교회 주변 가로수길에 새로운 상권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세속적인 향락 문화가 신사동과

압구정동을 잠식해 가고 있어 광림 청년선교국 청년들이 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패가 되고 건전한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빛의숲 페스티벌〉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게 되었다.

300명의 광림 청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로수길과 세로수길, 그리고 빛의 숲길을 '비전 벨트'로 선포하고 그 지역을 거룩한 땅(Holy Ground)으로 만들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아가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광림 청년 비전'을 나누었다. 또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 사역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

음을 알렸다.

청년선교국 문이슬 성도는 "〈빛의숲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는 말씀처럼, 빛의숲길로부터 시작해 가로수길 전체가 복음과 사랑이 가득한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전쟁설 땅굴설 현혹되지 말라”

담화문 발표, 회원교단 단체에 협조공문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7일 대표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12월 전쟁설, 땅굴 의혹 등에 대해 성도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교연은 또한 38개 회원교단과 11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회원교단 산하 교회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안보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간증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담화문에서 "최근 한반도 전역에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거나 12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설들이 일부 교회의 간증집회를 통해 기독교인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간증은 개인적인 신앙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면 이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신앙의 일탈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또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안보를 내세

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피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한교연은 이어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종말론과 전쟁설은 어김없이 등장했으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간증자들을 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일부 간증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의 말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차제에 정부와 군은 땅굴 의혹 등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담화문〉 땅굴괴담, 12월 전쟁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반도 전역에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거나 12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들이 일부 교회의 간증집회를 통해 기독교인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증은 개인적인 신앙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

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면 이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신앙의 일탈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안보를 내세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피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종말론과 전쟁설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간증자들을 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일부 간증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의 말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부와 군은 땅굴 의혹 등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4. 11. 7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제4회 성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 ‘내안의 화, 쿨하게 조절하기’ 세미나 안내

LA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 조)는 “성인 분노 조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해영 카운슬러와 조나단 강 임상심리상담 디렉터는 보도자료료를 통해 “더 행복한 라이프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분노를 상황에 맞게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 가정이 힘들어 지기도 하고, 직장 또는 대인관계에서 화를 잘못 표출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에서는 언어폭력도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화를 조절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나선 박해영 카운슬러는 “분노 조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통 방법이며,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처럼 감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누르거나 폭발하는 것도 문제다며 이민사회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내면의 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움으로서 더욱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나단 강 임상심리상담디렉터는 “분노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건강한 내면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내안의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습득해야 된다”고 밝혔다.

2010년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인가정상담소의 “분노 조



▲ 박해영 카운슬러(우)와 조나단 강 임상심리상담 디렉터(좌)가 성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절 교육 세미나”는 감정조절을 못 해서 힘들어 하는 많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LA다니엘 방 기자

LH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가져

140조원대 부채로 공기업부채 규모 1위의 불명예를 얻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탕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함에도 자산 헐값매각을 비롯해 직원녀들에게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126억원을 쓰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내부적으로 성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임금을 수령하여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할 LH가 낮은 생산성에 비해 고수입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경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조차 약한달간 LH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한 것과 관련하여 LH의 순기능 향상보다는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이다. 이에, LH를 제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을 뒷받침으로 LH개혁을 희망하는 전국의 개인과 시민단체가 모여 “LH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LH개혁을 촉구한다는 방침아래 국민운동본부(준)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축 2014 추수감사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일 교회

장로 : 신 호 균

담임목사 이 이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아농아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에배 오후 2시
수요일에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담임 임해숙 목사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곡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작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로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에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담임 박용숙 목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www.ezob.org 이메일: usc2810@hanmail.net
전화: 02- 414 - 1191 집: 02-423-5154
담임목사: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김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곡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직복음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주님과 함께하는 11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정직한 자의 삶

성경: 잠언 14장 2절 찬송가 357장

본문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리고 양심대로 올바르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직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이를 생각해보십시오. 노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의롭고 정직하며 크게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답게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미련한 자의 입술

성경: 잠언 14장 3절 찬송가 569장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본문의 미련한 자가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언행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말로 매를 자청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지혜로운 언행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의 힘

성경: 잠언 14장 4절 찬송가 496장

본문의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말씀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힘들거나 귀찮다고 해서 가지있고 소중한 일에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선한 일에 부지런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신실한 증인

성경: 잠언 14장 5절 찬송가 462장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보거나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진실만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명철한 자

성경: 잠언 14장 6절 찬송가 310장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명철한 자들인 것입니다.

제목: 미련한 자를 피하십시오

성경: 잠언 14장 7절 찬송가 523장

본문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삶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잠13:20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경건과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슬기로운 자의 지혜

성경: 잠언 14장 8절 찬송가 285장

신앙인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인간관계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와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해답을 구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제목: 정직한 자의 은혜

성경: 잠언 14장 9절 찬송가 524장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에서 '심상히'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법적인 행위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이야 사회통념상,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은 하겠지만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경건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직한 자의 반열에서 서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목: 나누는 마음

성경: 잠언 14장 10절 찬송가 372장

사람이 느끼는 고통, 혹은 즐거움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느끼려고 해도 함께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즐거움을 겪는 당사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다 아십니다. 100%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직한 자의 성공

성경: 잠언 14장 11절 찬송가 204장

본문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록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가 범한 악행과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처음에는 고통을 받더라도 영광스런 삶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성경: 잠언 14장 12절 찬송가 430장

어느 쪽으로 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좋은 믿음과 바른 삶을 본받아야 인생의 종말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자신을 우리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다면 결코 후회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목: 삶의 이면

성경: 잠언 14장 13절 찬송가 300장

본문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삶의 밝은 이면에는 반드시 고통과 근심이 있음을 알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며 고통의 날이 이를 때에도 그 때를 기억하며 결코 절망하지 않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변함없는 선한 사람

성경: 잠언 14장 14절 찬송가 180장

본문의 '마음이 굽은 자'는 '변절한 자, 돌아선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그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배교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배교자는 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변함없는 선한 자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슬기로운 자의 행동

성경: 잠언 14장 15절 찬송가 510장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극히 단순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설득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는 작은 유혹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죄의 길에 빠지며 요즘 시대에 비유하면 이단 사설

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지혜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거짓과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럼

가을은 왔는데!

추수의 계절 가을, 오곡은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북돋우며 퇴비를 주면서 땅 흘려 가꾸어 가을에 추수하게 된다. 추수의 계절에는 모두가 절름없이 일을 해도 부족하다.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씨도뿌리지 않고 퇴비는 물론 가꾸는 일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일꾼들이 아니다. 땅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을추수를 기대하는 망국의 노신사들이다.

국민들은 일꾼으로 뽑아 주었는데 정쟁에만 혈안이 되고 세비만 챙기는 자들로 국민들에게 낙인 되었다. 일꾼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밥을 주며 품값을 주겠는가. 양심도 인격도 없는 정객들이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남침야욕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무장을 완료하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외적으로 빈부격차가 없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오직 당의 명령과 지시 속에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철통같은 공산당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언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를 강타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낮잠 자는 정책에 국민들은 마음 졸이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자유민주사상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6·25전쟁보다 더한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정치 일꾼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정치의 정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면 여·야 모두가 피나는 팍과 노력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 산적해 있는 정책들을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할 내용들을 하루에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은 행정관에서도 하지 못할 거수기에 불과한 정책으로 평가 할 수밖에 없다.

국가발전은 책임져야 할 국가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불의와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은 물론 좌편향 이념을 가진자 들을 색출 퇴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적으로 분산 되어 있는 부서들을 통합하여 하여 새로운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력취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서들을 세분하여 행정기관에서 300명이면 될 인원을

1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업무를 시행한다면 잘못된 행정 체제인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라 하는데 하는 일은 그 인원의 절반만 되어도 모든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꾼은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 종일 땅 흘려 일하면 노임을 땀땀이 받는 것이다. 사람은 양발로 걸음을 걷는다. 그중하나만 장애가 있어도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라는 거대한 기구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면 야당은 장애를 안고 있으며 여당은 비둔한 상태에 있다. 야당은 국민지지도가 10%대라면 증증장애를 가진 것이다.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여·야가 공존하면서 동행해야 한다. 야당에 일부 진보적 죄파 사상을 가진자들이 있다면 모든 것에 우선하여 퇴진 시켜야 한다. 국회의 주초석이 흐트러진다면 국가는 일어 설 수 없는 것이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안정 사회를 지향해 준다면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새로워 질 것이다.

야당 내에 RO조직 같은 좌파 공산성향의 당원이 있다면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투쟁 했으나 결과는 분열밖에 없었다. 야당은 세월호 법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말고 해상교통사고로 처리하고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반대여론이 있다하여도 국정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추수할 곡물이 없다면 무슨 낫으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알곡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성실한 마무리로 추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퓨리판교회(예복교회)
17-19 예림교회(한규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1 갈멜산기도원(이예재목사)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공기도원(강성광 목사)
14-16 갈산교회(김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1-23 침홍은교회(김갑성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5 침사리교회(강신조 목사)
4-7 갈멜산기도원(이유관 목사)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이예재목사)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목사)
25-28 비전교회(조영현 목사)

2013년 3월

17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11 성산수양원(홍준근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5-16 정기교회
22-25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9-1 주우리교회(이규형 목사)

2013년 5월

3 C세월 TV예배
6-8 침사리교회(강신조 목사)
11 주향교회(김종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이예재목사)
19-6월1 주우리교회(이규형 목사)

2013년 6월

3-5 한교연합수련회(전체)
10-13 침사리교회(최대식 목사)
14 오산리교회(최준연 목사)
17-19 내내교회(최준연 목사)
20-21 국내미자립교회 순방
24-27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경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8-10 성산교회(신승훈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 여름특강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세계교회(지역아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3 갈멜산기도원(유영목사)
4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5-8 금산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목사)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19-22 갈멜산기도원(이유관 목사)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목사)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신미디어예배
7-9 별연교회
14-15 정기교회
17 부흥사역수련회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광명장로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교회(박성일 목사)
18-20 장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5 서광교회(김종수 목사)

2013년 12월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안병열목사)
4 동국명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복 목사)
13-16 목양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22 영흥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유관 목사)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유영목사)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신방
월전교회(최성근목사)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4년 4월

3-5 광선수양원(방안석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8-21 감림산기도원(이유관 목사)
21-22 정기교회
28-1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3년 12월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안병열목사)
4 동국명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복 목사)
13-16 목양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22 영흥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유관 목사)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유영목사)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신방
월전교회(최성근목사)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4년 4월

3-5 광선수양원(방안석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18-21 감림산기도원(이유관 목사)
21-22 정기교회
28-1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014년 10월

6-8 천호성결교회(여성삼목사)
12 성문교회(이종래목사)
13-14 정기교회
15-16 전주기도원(김진홍목사)
20-23 인천세원교회(강규석목사)
26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7-27 예덴교회(이원종목사)

2014년 11월

3-6 서광교회(배영길목사)
10-12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목사)

2014년 12월

1-4 승전축복성회(예복교회)
7-10 동원전교회(변찬목사)
15-19 필리핀사역자 컨퍼런스
21 천보산기도원(유영목사)
29-31 의성 안영원합성회(정현숙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제10대 세주협 대표회장 주은총 목사 취임예배 드려

세주협 발전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주협영광부흥사회(이하-세주협)는 지난 18일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은총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가 많은 부흥사회 동역자들의 축하와 격려가운데 세주협 제10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부총재 전진성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이춘우 목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바울 목사가 성경 롬1:12~13절을 봉독하고, 유한나 목사가 특송을, 꾸미우리의 몸찬양이 있는 후 총재 이재갑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박종만 목사가 헌금송을, 박연자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박종만 목사의 사회로 2부 순서가 진행되어 직전대표회장 광영민 목사가 위임사를 전하고, 대표회장 주은총 목사는 취임사에서 본협 부흥사회가 설립된 지 10년

이 되었다며, 크고 작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양보와 사랑으로 화합과 단결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총재목사와 전임대표회장, 모든 임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회 발전을 위하여 조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직전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와 신임대표회장 주은총 목사는 감사패와 취임패를 각각 전달했다. 또한 지난 8월 25~27일까지 충남



주은총 목사
대표회장



태안군 이원면 내리교회에서 세주협 부흥사회 수련회를 갖고 전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에게 부흥사 자격증 수여증을 전달하고, 세주협 임원들에게 각각 임명장 수여를 하는 등, 꽃다발증정이 있었다.

또한 이날 총재 이재갑 목사는 직전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에게 지난 회기동안 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그 공로가 컸다며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어 연수원장 정기환 목사가 권면을, 부총



CTS <누구에게나 찬란한> 시사회 개최

아픈 세상에 부딪친 소년, 소녀들의 뜨거운 반란!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국내 최초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축구단 '희망FC'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시사회를 오는 11월 3일(월) 오후 7시 30분 CTS 기독교TV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은 지

역아동센터 유소년 축구단 '희망FC'의 6년간의 여정을 담은 축구다큐멘터리 영화로 '희망FC'의 성장과 그들을 이끌어주는 김태근 감독의 가슴 벅찬 성장기를 담은 작품이었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관객상을 수상한 화제작으로 전국 4만 관

객 신화를 달성했던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의 임유철 감독의 복귀작으로 영화를 통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뜨거운 감동과 희망을 전해 주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환경환 사무총장은 “가난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꿈을 꾸고 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시설

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영화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누구에게나 찬란한> 시사회를 CTS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경찰의 날 제69주년 행사 개최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 간부들과 함께 오전 서울 동작동의 대도 해심총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경찰충혼탑에 참배를 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와 각계 각층의 일반 내빈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진영 안전행정부위원장, 서청원·조원진·정청래 안전행정부위원 등 국회의원 8명, 구재태 경우회장, 최석원·안응모·강민창 등 전직 치안총수들도 여러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주는 국민에게 감사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경찰에 대한 노력을 치하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9주년을 맞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항상 국민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가족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땀바라지해온 경찰 가족들을 치하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애국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며, 후배 경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는 경우회원들에게 감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과확수사 역량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지시하

고,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경찰',현장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찰',범죄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공자 포상에서는 중앙경찰학교장인 최종현 치안감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한국경찰청 강신명 청장의 초청으로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김민수 목사,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 지도교문 박한규

박 대통령, 국민의 신뢰받는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되어 달라...

이 홍조근정훈장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 이금형 치안감)이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대표로 정부포상을 친수 받았으며, 이번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총 403명(훈장 31명, 포장 33명, 대통령표창 161명, 국무총리표창 178명)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찰은 내년 창립70주년을 앞두고 이번 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타파하고 치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에 걸 맞는 경찰 역할을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목사, 부회장 김중순 목사(전 경찰청 경목실장), 부회장 감창룡 목사,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서기 박양우 목사, 회계 임미상 목사, 회의록서기 우영문 목사, 사무국 임용환 국장,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협동총무 임혜숙 목사, 황성목 목사(대신총회 경목부장), 언론대표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및 경찰기독교일보 대표), 노승하 위원(후원이사) 등이 참석을 했으며, 행사를 마친 후 세종홀에서 베풀어진 다과파티에 VIP로 초청받아 시루떡 절단을 갖고 다과 및 환담을 나누었다.

축 2014년 秋收感謝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모정선 신길현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운기 김진희
협동목사: 장정화(은퇴) 서기욱
전 도 사: 추정희 전민준 윤영욱
교육전도사: 송년백
사무장 로: 고재현 송영문 원은상
정승언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경규 김학진
김선호
휴직장 로: 원복희
은회장 로: 노남규
협동장 로: 이병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형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악예배당: 목포시 남악2로 52번길 남악크리치4동 301
TEL. 061-287-0692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4년도 목표: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춘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http://jlc.kr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TEL 031-974-7091

한교연 논평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11일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논평에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최이우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이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된 인사에 대한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최 목사가 평소 동성애차별 금지법을 반대해 왔다는 이유로 ‘무자격 반인권 인물’ ‘국격 손상’ 운운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스스로 반인권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일을 하는 기구”라고 전제하고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지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천2백만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매도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또한 “최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천해 온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말하고 “그가 평소 어떤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는 그가 몸담았던 단체의 면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를 인권 무자격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인권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가들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인권은 인권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제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고 “인권 단체들은 이제 막 임명 받은 비상임 인권위원 한분에게 쏘는 관심과 열정을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할애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국교회연합 논평〉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최이우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이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된 인사에 대한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이다.

이들은 최 목사가 평소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다는 이유로 “무자격 반인권 인물” “국격 손상” 운운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스스로 반인권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일을 하는 기구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지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가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천2백만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매도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최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천해 온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이다. 그가 평소 어떤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는 그가 몸담았던 단체의 면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를 ‘인권 무자격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인권 자격증을 발

급받은 전문가들이란 말인가? 최 목사가 우리 사회 다수의 양심과 건강한 사회적 통념을 대변해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마치 성소수자인권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인권은 인권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제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제 막 임명 받은 비상임 인권위원 한 분에게 쏘는 관심과 열정을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할애하기 바란다.

2014. 11. 11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칼럼

대북전단



서영웅 목사 (상임이사)
퓨리탄 장로교회

통일의 길은 두 가지로 나뉜다. 남북통일과 적화통일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다. 6·25전쟁은 64주년을 넘겼다. 당시의 세대들은 배고픔과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고된 삶 속에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견디며 오늘의 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 보기를 외쳤으며, 국민 반공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의 조직을 만들어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심어 주었다. 학생들에게 전방방굴 견학을 시키면서 공산주의 잔학성을 교육하였다. 땅굴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두주먹을 쥐며 6·25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오늘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열심을 다해 오늘의 경제국을 이룬 것이다. 아픔을 모르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경제체제가 안정으로 가는 시점에서 혼란사회를 조성하려는 용공 좌파 세력들은 국론 분열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는 적화통일을 위해 계속적인 대남 침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 각계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좌파 조직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조치해야 한다.

지난 10월 탈북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의 총력전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 함에도 탈북단체는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내려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에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체제 특성상 저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한데 대해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취해야 한다.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는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대피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탈북단체들의 색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아 철저한 검증이 요구 되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보내 북을 자극해서 전쟁발생을 원하는 것인지, 민심소란을 위한 것인지, 진정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인지 등 정보적 차원에서 확인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체제를 잘 알고 있다. 전단을 보고 김정은 체제를 비난 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 상황이 발생한다면 탈북단체와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변에 위협을 주고 북한을 자극하여 일부국지전 까지 일어날 상황을 생각한다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남남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의 첫 단추인 남북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국의 힘을 가지고 해야 한다. 힘이 없는 회담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다. 회담에 앞서 북한이 남쁠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더 이상의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강력한 국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국가의 안보를 불신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땅굴” 혹은 “전쟁” 등을 주장하여 대한민국 1,200만 성도와 5,000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의 안보를 불신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와 교회 내에 간증집회 시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자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달 한미(60) 공군 예비역 소장이 강연에서 “북한의 남침 땅굴 때문”에 서울 일대에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전국 남침 땅굴

망’ 모형도를 제시하며 “군에서 땅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구 국방부 장관은 “1982년 이후 남침땅굴 민원 740여 건을 접수해 590건을 시추했지만 어떤 징후도 없었으며 탐지작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국군이 지금도 불철주야 철통같은 경계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며, 적이 어떠한 도발도 하지 못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격려나 조언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분명한 근거가 바탕이 된 안보정보를 전파해 주기를 요청한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대해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며, 언론을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1,200만 성도와 5,000만 국민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불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나라 국군과 국방부를 신뢰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이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하고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앞당겨 지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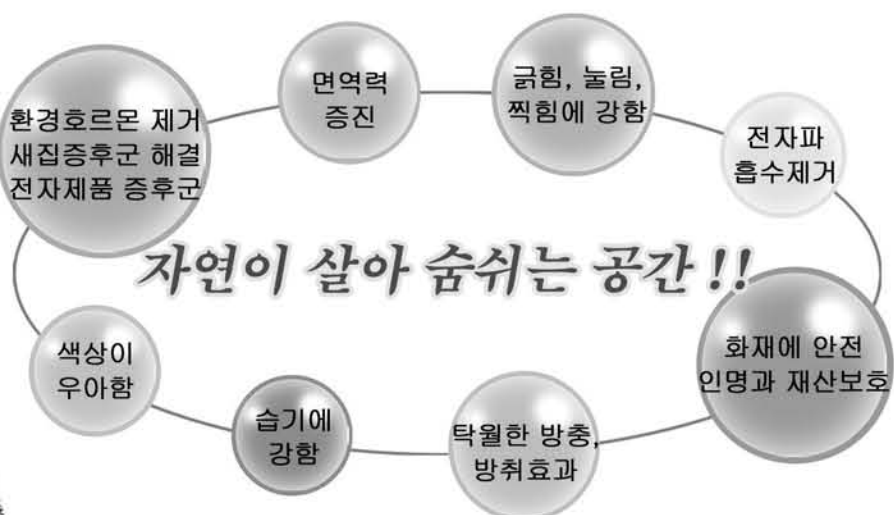
2014년 11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습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습시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용범위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학교, 유치원, 요양원, 호텔, 체육관, 사무실 등

상담문의 : (주)헤스코 ☎ 1577-0671

E-mail : hesko@naver.com www.hesco.co.kr

CTS '2014 한국교회리더십포럼' 개최

미래목회와 교육 선교전략 제시

미래목회와 교육선교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14 한국교회리더십포럼'이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CTS 노랑진 본사 컨벤션 홀에서 <미래목회와 교육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성주 목사(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노함모 목사(서울우리교회)와 설동주 목사(파천약수교회)는 각각 △ 한국 교회 위기 진단과 미래목회 △ 다음세



대 세우기, 세마교육의 주제 발제를 맡고, 박병호 목사(라운하재교회)와 김인환 목사(서울신도교회)가 패널 토의에 나선다.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에 이어 손상현 목사(순복음함성교회)의 인도로 기도회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리더십포럼은 한국교회에 초교파적인 연합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도자급 목회자로 성장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있다. 회원은 CTS 뉴미디어목회과정 수료생으로 구성돼 있다.

'CTS 뉴미디어 목회과정'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30대에서 40대 중반 차세대 리더 목회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개설했으며, 미디어를 통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견 목회자들의 실제 사역수요에 부응코자,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의 필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강화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교회리더십포럼 회장 이기엽 목사(충무교회)는 "사라져 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주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43년간 희망을 안겨준 애기봉 등탑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지난 15일 서부전선 김포에 있는 애기봉의 십자가 등탑이 철거되었다. 이는 국방부가 안전 진단 결과, 붕괴의 우려 때문에 철거하였다고 한다. 애기봉 십자가 등탑은 1971년에 세워진 이후, 무려 43년 동안 전방 지역의 성탄절 점등행사의 명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권 시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점화를 못하게 하였다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다시 점등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등탑이 노후하여 보수한 다든지 하는 조치가 아닌, 그 자체를 철거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해당 부대의 결정이라는 것과 차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은 지금까지 민간인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줬은 것인데, 이를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본다.

북한도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에 종교 시설물을 세운 것이 뭐가 그리도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애기봉의 등탑은 다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반 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일 것인가?

만약 어설픔게 북한 입장만을 고려하여 철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애기봉은 단순히 낡은 철 구조물이 아니라, 종교를 통한 인류애와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혁총회(제99회)김정열 총회장 취임예배 드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총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지난 21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에서 제99회 총회장 김정열 목사의 취임축하감사예배가 드려졌다. 부총회장 강성희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여 대전노회장 임순종 목사가 기도, 부산노회장 김재길 목사가 행15:4~11절을 봉독하고, 수도노회 윤글로리아 목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운우 목사는 "베드로와 같은 총회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울러 총회와 노회는 총회장과 임원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김정열 총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가 교단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달라는 의미로 구두티켓 두 장을 총회장에게 선물로 증정했다.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1.김정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셨다. 2.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총대들을 통하여 만장일치 추대하여 총회장으로 세우셨다. 3.총회장 김정열 목사의 인생의 여정에서 교단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기뻐 주셔서 총회장으로 세워주셨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총회장 김정열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 앞과 총대 여러분께 감사를 돌린다면서 아무리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봐도 부족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기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과 총대 여러분에게 충성할 것을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마음에 헌신할 것을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의지를 존중이 여기겠습니다. 총회 동역자 목사님들의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힘 입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서원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주님 위해서 살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1974년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처음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총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모든 일에 자원해서 봉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후9:8절에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에 하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고 했다.

이어 총회서기 조재호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증경총회장 이운우 목사의 축도로 취임축하감사에 배를 마쳤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김정열 목사는 종식을 마친 후 총회장의 사회로 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회발전을 위하여 총회산하 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또한 문서선교를 위하여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 운영을 위해 년 간 총회제정 10%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저소득가정 및 은퇴목회자 대상 '사랑의 김장나눔'

CTSI, 400여 가정에 1,500포기 김장김치 전달해

CTSI International(이사장 감경철, '이하 CTSI')은 지난 8일, 저소득 가정 및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어 1,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총 4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우양재단과 공동 개최한 본 행사는 추운겨울을 맞이하는 저소득 가정과 은퇴목회자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 평생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목회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번 김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양재단 장학생들이 직접 정성으로 길러낸 유기농 채소들을 사용한 것이라 그 의미가 깊다.

은퇴목회자 권희로 목사는 "추운 겨울은 다가오고 준비할 것들은 많아 걱정이었었는데 이렇게 김장을 선물해주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김치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어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CTSI 관계자는 "겨울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소

외계층과 은퇴 목회자분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CTSI의 나눔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CTSI는 CTS기독교TV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행복한 섬김과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제 3세계의 빈곤과 굶주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국내 능어촌 미자립 교회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독교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후원문의 : 02)6333-0070 (www.cts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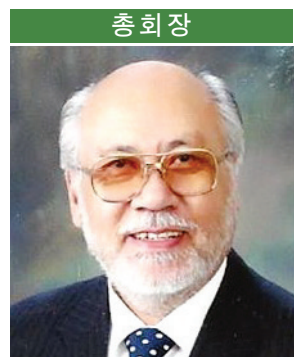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성회 일정	
1(토) 오후	다트빌 찬양동행페스티벌 ☎(041)531-7216 주최: D.W.M 다트빌세계선교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다트빌예술대학원(원장 정정순 목사)
2(주) 오후	서울 글로벌총회(이매리 목사) ☎ 010-4870-7572
2(주) 오후	서울 양문교회(신일수 목사) ☎ 010-5312-7597
3(월)~ 5(수)	대만(Taiwan) 화롄지역 원주민교회 복음화연합성회 (준비위원장 류계란 목사) ☎ 886-0930-654-552
6(목)~ 7(금)	대만(Taiwan) 일원지역 원주민교회 복음화연합성회
10(월) 오전	열방세계선교부총회의(하은혜 목사) ☎ 010-3028-1545
10(월)~13(목)	서울 순복음사랑교회(김다윗 목사, 이해경 목사)
14(금) 오전	성령부흥사역수원(대표회장 황세환 목사) ☎ 010-9954-9191
14(금) 오후	동탄 공녀미공교회(김현수 목사) ☎ 010-7667-4719
17(월)~19(수)	서울 가나안교회(장병익 목사) ☎(02)2643-4296
20(목) 오후	한국전도총회(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1(금) 저녁	2014 서울·세계 평화의 밤, 장소: 63빌딩 컨벤션센터
22(토) 오전	김포동신교회(김종우 목사) ☎(031)996-9155
23(주)~26(수)	안산 일마누엘교회(이성남 목사) ☎(031)494-7750
24(월) 오전	서울 대성성교회(박원모 목사) ☎(02)2613-2011
25(화) 오전	부천 행복교회(이화경 목사) ☎(032)344-3313



2014년 秋收感謝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김정열 목사
총무노회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종 목사
대전노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주제 : 평안하여 든든히서 가는 총회(행 9: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